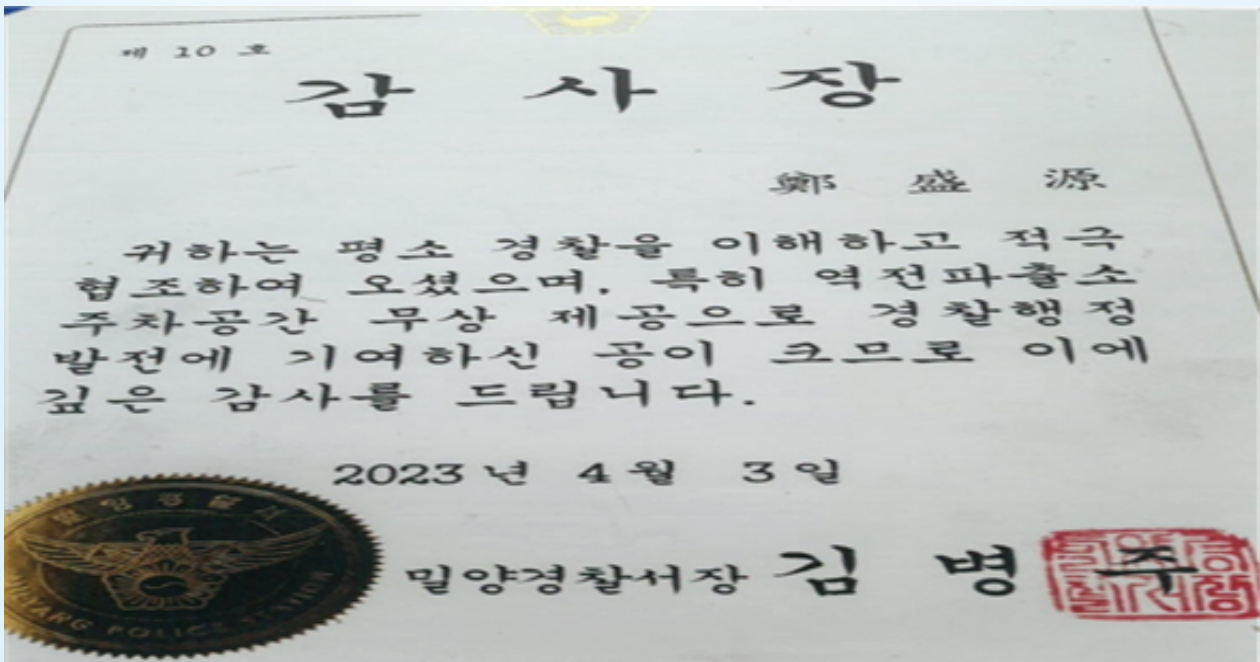


밀양시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
무소속 6번, 정 성원후보자

“책자형 선거 공보”



밀양 역전 파출소 뒷집 240평에 경찰관 차량 35대를 22년동안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차하게하여 밀양 경찰서장으로 부터 받았던 감사장 (2023년 4월 3일)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밀양시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

1. 인적사항

| 기호 | 소속정당명 | 후보자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세) | 직업 | 학력 | 경력 |
|----|-------|--------|----|--------------------|----|----------------|-------------------------------|
| 6 | 무소속 | 정성원 | 남 | 1953.11.22 (72) | 무직 | 부산동성고등학교 졸업 | (전)밀양씨름협회회장 (전)밀양영남루 팔각회회장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 재산상황(천원) | | | | | 병역사항 | | |
|----------|---------|-----|------|------|------------------------------|-----|-------------|
| 계 | 후보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후보자 | 배우자 | 18세 이상 직계비속 |
| 284,440 | 284,440 | - | - | - | 육군, 일병, 복무완료 (소집해제) | - | - |

3.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 | | | 후보자 전과기록 |
|---|-----|---------------|-------|---|
| 구분 | 납세액 | 체납내역 | | |
| | | 체납세액 누계(완납일자) | 현 체납액 | |
| 계 | 5 | - | 416 | 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벌금 100만원, 2004년 12월 15일 2. 공인중개사사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50만원, 2012년 1월 27일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 2014년 10월 1일 4. 상해, 벌금, 150만원, 2015년 6월 18일 5. 사기 공인중개사사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9월 21일 6. 위증, 벌금 300만원, 2018년 5월 17일 7. 상해, 벌금 200만원, 2025년 7월 4일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원, 2025년 11월 27일 |
| 후보자 | 5 | - | 416 | |
| 배우자 | - | - | - | |
| 직계존속 | - | - | - | |
| 직계비속 | - | - | - | |

4. 소명서

5. 번 소명 : 친한 후배에게 경매 넘어가기 직전의 건물을 제가 소개해서 팔아서 도와주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저를 고소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하고 억울하게 그 일로 연루되었습니다.

6. 번 소명 : 우리 씨름협회 이사가 알뜰폰 사업으로 연루되어 1억2천8백만원을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자 증인을 서 주었는데 가해자 변호사가 저를 위증죄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당한 사건입니다.

7. 번 소명 : 청도군에 있는 땅을 제가 매입했는데 지주분이 자기 땅 옆에 분묘 2기 있는 것을 제게 말하지 않고 팔았습니다. 제돈이 700만원 계약금, 공사비포함 약 900만원 들어갔는데 고지사항 의무위반으로 반환을 청구했으나 지주 땅 바로 옆에 있어도 지분이 따로 되어 있어서 서로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1,200만원을 손해 보았습니다.

8. 번 소명 : 교통사고로 벌금을 받았는데 1주일에 3번 친구가 투석을 하는데 점심을 사주러가다가 중앙선을 조금 침범하여 상대방 버스는 급정거했고, 서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버스안에 한분이 다쳐서 보험회사에서 700만원 위자료조로 1,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3대를 이어온 '밀양 사랑'의 DNA로 봉사하겠습니다.

저의 선친께서 초대 밀양 씨름 협회장을 하시면서 밀양시 체육인들과 힘을 모아서 전국에서 3개밖에 없는 삼문동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설운동장이 경매에 나왔을 때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의 형님이신 정길원씨는 밀양시에 건의하여 경매를 낙찰받게 했습니다.

경매당일 생활체육인들을 동원하여 경매장을 지키게 했습니다.

법무사에서 경매를 낙찰받으러 왔다가 다들 그 위세에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운동장이 시민의 품에 영원히 돌아온것입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

형님께서는 노인대학 교장을 33년간 하였고, 생활체육회장을 8년 하셨습니다. 저는 씨름협회 회장을 8년 6개월동안 하면서 회원들에게 단 돈 1원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랑제 씨름대회때는 제 돈 1,000만원을 내어 행사를 했고, 그리고 밀양 역전 파출소 뒷집 240평에 경찰관 차량 35대를 22년동안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차하게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극구 권하는 바람에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순신 장군책을 보고 중상모략을 당해서 감옥에서 모진고문을 당하 시고도 마지막 노량해전에서는 갑옷도 입지 않고 산화하셨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밀양을 위해서 제 한몸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실전과 능력으로 준비된 시의원 정성원

전 도의원 정길원씨 동생입니다.

삼문동과 마암산 사이에 작은 섬을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체계적 준설을 통해 공간 확보하여 '마산 오동도' 섬처럼 만들어서 삼문동에 관광객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부북면 퇴로저수지를 이유없이 흙으로 매립한 것을 다시 퍼내고 저수지 위 태양광도 철거하고 부북면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시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공업도시, 농업도시 및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현재 나노공단에 삼양라면외 공장 1개가 있는 정도이고, 외국사람이 아니면 농사도 짓기 어렵습니다.

시 예산은 사용한 곳을 전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저는 시민들의 강력한 대변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밀양의 과거의 행정적 아쉬움을 바로잡고, 이제는 준비된 실천력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도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데 전 시장이 낙하산 공천으로 내려와서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천혜의 고장을 다 망쳐 놓고 말았습니다.

산과 강 유원지에 거의 쇠말뚝을 박아놓고 쳐다만 보는 강으로 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저는 형님이신 정길원(초대 도의원)씨로부터 중심사상을 20년간 섭렵하였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도에서 시·도의원 공천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끝없는 정쟁으로 썩어가는 지방자치제도를 더 이상 보고 있을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밀양시 발전의 철학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밀양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현재보다 10배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제가 시 의회에 가서 밀양 발전의 구도와 비전을 제시하여 제가 가진
식견을 밀양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정길원의원의 밀양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책임자로서 반드시 잘
사는 밀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식전'으로 밀양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나가는 밀양에서 머무는 밀양으로! 관광이 곧 경제입니다."

1. 삼문동 '밀양형 오동도' 프로젝트 추진

- 섬 확장 및 정비: 삼문동과 마암산 사이 유희부지 및 작은 섬을 준설·확장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 보행 특화 구름다리(인도교) 설치: 삼문동 본토와 섬을 잇는 독창적 디자인의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찾는 밀양의 새로운 '랜드마크 포토존'으로 만들겠습니다.
- 삼문동 누각탑 건립: 밀양강의 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전통 누각을 건립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 부북면 퇴로저수지 복원 및 명소화

- 환경 복원: 이유 없이 매립된 저수지 흙을 퍼내고, 경관을 해치는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여 저수지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겠습니다.
- 수변 관광 자원화: 퇴로저수지를 부북면 최고의 수변 공원으로 재탄생시켜 인근자영업자와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 밀양여자씨름단 창단 및 체육 인프라 확충

- 전국적 인지도 확보: 씨름의 고장 밀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밀양여자씨름단'을 창단하여 전국에 밀양의 이름을 알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 투명한 시정 감시 및 예산 공개

- 예산 보고회 정례화: 1조 3천억 원 예산의 사용처를 시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감감이 예산 집행을 막는 '시민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민의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 공약대로 하면 밀양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짐으로 해서 밀양 전체 자영업자들과 상설시장 전부 호황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체육인으로 3대째 밀양을 위해서 노력했고 ,사심없이 오직 밀양의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시 예산 1조 3천억원을 제대로 써야 할것입니다 .
밀양시 예산 1조 3천억 원은 시장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피땀입니다.
시장과 같은 당이라고 눈치 보며 할 말 못 하는 의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예산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시민의 강력
한 대변인'이 되어 밀양의 밀양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 시장의 과거 행정의 아쉬움을 바로 잡아 강도 개방하고 ,유원지답게
만들고 캠프장과 수영장도 만들것입니다.

사심 없는 마음, 굴하지 않는 기백으로 밀양을 위해 제 한 몸 바치겠
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깨고, 오직 '시민의 상식'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저 정성원,
오늘 비장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누가 진심으로 이 도시를 위해 뉘 사람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1. '당'과 '색깔'이 아닌, '사람'과 '진실'을 선택해주시요.

수 많은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 오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말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의지해 투표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허리 굽혀 절하며 모든 것을 바치겠다던 사람들이 당선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만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의 공약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 이제는 차갑게 물어야 합니다.

2.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는 밀양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헌신이나 공헌도 없이 오직 사리사욕과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표를 구걸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변화 없는 정체된 도시, 당파 싸움에 매몰된 정치로는 밀양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중앙 정치는 끝없는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심지어 공천이 불투명한 거래로 얼룩졌다는 의혹까지 들려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밀양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3.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저 정성원은 약속드립니다.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직 밀양시민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돈과 조직이 아닌, 시민 여러분의 정직한 뜻을 받드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 약속을 지키는 정치: 선거 때만 고개 숙이는 정치가 아니라, 임기 내내 시민 곁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깨끗한 정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밀양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 민생 우선 정치: 정쟁이 아닌,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밀양의 변화는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 정성원, 정직하고 강직하게 여러분의 길을 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요.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

기호 6번 무소속

후보자 정 성원을림